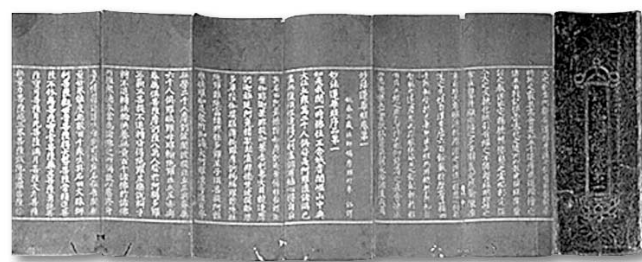


법화경

정승석 지음
사계절 / 1만2천원



국보 185호 <묘법연화경>. 고려 공민왕 22년(1373)에 은색 글씨로 정성되어 옮겨 쓴 것이다.

대립에서 조화와 통일로

“<화엄경>이 현묘하고 심오한 무애의 경지를 펼쳐 보인다면 <법화경>은 그 경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방편으로 진실을 유인하는 <법화경>의 매력에 동북아시아에 ‘법화 신앙’을 발달하게 한 것입니다.”

다양한 비유와 문학적 구성으로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는 <법화경>.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서 ‘법화 신앙’으로 거듭난 <법화경>은 중국 수나라에서는 국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에서는 왕조의 정통성을 선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유포됐던 경전이다. 하지만 그동안 선보인 <법화경> 관련 책들은 경전 구절의 풀이에 머물러 경전이 가지는 철 의의와 사회·역사적 의미를 알기에는 부족했다.

최근 정승석(48·동국대 인도철학과·사건) 교수가 펴낸 <법화경-민중의 흥에서 핀 연꽃>은 이러한 갈등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정 교수는 책에서 단순한 경전 풀이 대신 <법화경>의 탄생

단순한 경전풀이에서 벗어나 탄생과 전파과정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

과 동아시아 전파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화경>이 과연 민중 지배를 위한 정치이데올로기였나?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법화경>은 법이 원인이 다양한 사본으로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화경>은 과거의 전설 속에 갇혀 있는 셈이죠.”

때문에 정 교수는 책에서 <법화경>이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널리 퍼진 시기와 법화 신앙의 유행 등 ‘법화경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법화경>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았던 구마라습(344-413)의 번역본인 <묘법연화경>을 통해 중국에 소개

됐다. 이후 법화 신앙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래된 민중들의 삶 속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다. 정 교수는 동북아시아에서 법화 신앙을 번성하게 한 토대인 천태종의 성립과 전파, 교세 확장 과정을 설명하며, 이러한 상부구조가 민중의 저변으로 파고들어 튼튼한 하부구조를 형성하게 됐다고 말한다. “<법화경>을 국가와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신봉한 소수 엘리트 집단과 <법화경> 자체를 맹목적으로 신봉한 다수의 집단이 ‘법화신앙’을 짝 맞게 한 저력”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의 일련장은 ‘나무 묘법연화경’을 열심히 읊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단순한 신앙형태지만, 민중들 사이에서 폭넓게 유행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법화경>의 중심 사상을 전파하는 데 사용된 일곱 가지 비유 즉 ‘법화 7유’를 간추려 소개한다. ‘부족’에서는 <법화경>의 성립 시기와 ‘정법화경’, ‘점점묘법연화경’ 등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 <법화경>의 원형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법화경>에 담긴 사상과 방법론이 ‘옛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법화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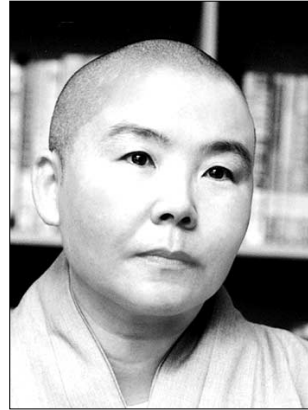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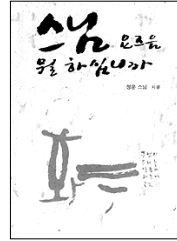
“서구 문명이 발전하는 데 기독교 정신이 공헌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문명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길을 <법화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화경>이 표방하는 ‘일승사상’은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지니는 가치를 인정하고, 갈등과 대립을 평등과 조화의 통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법화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수행자의 ‘멋진 생활’ 엿보기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정운 스님 지음
여시아문 / 9천원



“종교는 내 속에 잠재돼 있는 에너지의 방향 전환이다. 또 비우는 연습이다.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생활이 있을까 싶다.”

충남 보령 세원사 주지이자 보령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정운 스님(사진)이 수필집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를 펴냈다. 1999년부터 일간지와 교계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글 60여 편을 모은 이 책에서는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 온 스님의 수행이력을 볼 수 있다.

청소년 포교·스승과 도반 이야기 등 신문·잡지에 기고한 글 60여편 묶어

스님이 보령 시 주교면의 고추밭을 법향(法香) 가득한 세원사로 탈바꿈시킨 것은 한 아주머니 덕분이다. 우연히 보령 나들이에 나선 정운 스님이 자신을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난 후 ‘이곳에서 포교를 해야겠다’는 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추밭을 개간해 지은 가건물은 장마철이나 태풍이 불 때면 이곳저곳이 무너져 내리기 일췌였고, 겨울이면 아무리 보일러를 가동해도 손이 시릴 정도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매진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

학과에서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포교의 중요성을 실감했던 스님은 세원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열었다. 처음에는 단 세 명의 신도만이 참석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차츰 절을 찾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그러던 1989년 마침내 가건물을 헐고 지금의 법당을 지었다. “청소년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라고 말하는 스님은 “모든 것을 내 이익으로만 채우지 말고 그 이득을 다시 사회로 환원할 줄 아는 것이 부처님이

증생들에게 일러 준 회향이다”고 말한다.

신문과 잡지 등에 실린 글들은 길지 않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느낀 포교의 어려움, 잘못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안타까움, 수행자로서 산다는 것의 보람과 기쁨 등을 잔잔하게 전해준다.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심음섭(혜전대) 교수의 삽화가 글 읽는 맛을 더한다.

덧붙여 정운 스님이 ‘요즈음 뭘 하십니까’를 펴낸 독자라면 본지의 일간 인터넷 ‘북다뉴스’(www.buddhanews.com)를 클릭해보면 된다. 스님은 이곳에서 ‘1분이면 마음이 열려요’란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있다.

여수령 기자

‘경험과 번뇌’ 경전공부의 바탕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틱낫한 지음 / 양미성·김동원 옮김
장경각 / 8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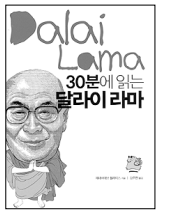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인 <금강경>을 틱낫한 스님이 풀이했다. 경전 읽기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라는 스님은 “모든 개념을 떠난 고요한 마음으로 <금강경>을 읽되, 주석을 먼저 읽지 말고 경전부터 읽으라”고 강조한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번뇌를 바탕으로 경전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

력하라는 것이다. 또한 스님은 “금강석이 무지와 번뇌와 망상을 깨부수는 것을 의미하는 <금강경>의 이름처럼, 경전을 익히고 수행함으로써 무지를 깨고 그릇된 생각을 뛰어 넘어 해탈의 언덕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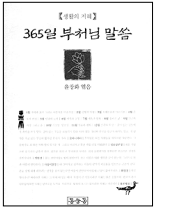
책에서는 단순히 경전 뜻풀이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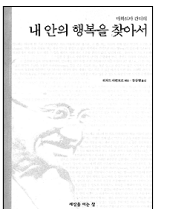
■ <30분에 읽는 달라이 라마>(제네이예브 블레이크 지음, 강주현 옮김, 랜담하우스출판, 5천5백원)=“달라이 라마는 누구인가?” 최근 티베트 불교와 달라이 라마에 대한 책들은 넘쳐지만 정작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다. 달라이 라마의 생애와 사상, 주요 저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 <365일 부처님 말씀>(윤창화 엮음, 동승출, 7천5백원)=“나쁜 말, 거짓말, 이간하는 말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악행도 못할 것이 없게 된다.<화수경> 경전 속 부처님의 말씀 중 생활 속에서 되새겨 볼만한 문구들을 하루에 한 편씩 읽을 수 있도록 가려 담았다.



■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리차드 아텐보로 엮음, 장상영 옮김, 8천8백원)=영화 ‘간디’로 1983년 아카데미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한 영화감독 겸 배우 리차드 아텐보로가 간디의 글을 묶었다.



■ <초여름의 향기>(서성림 시집, 경서원, 5천원)=불자로서 수행과 글쓰기에 매진하고 있는 서성림 시인의 시집. ‘내 마음에 끼인 얼룩 때/ 날마다 씻어도/ 다시 찰짝 붙어있다’(‘수행’ 시나 ‘그랬구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끊임 없구나’(‘중생 소견’ 시) 등 자신을 비유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들을 보이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질	우물 스님	효 경 립
2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 경 각
3	아! 붓다	틱 낫 한	반디미디어
4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 널
5	불교수행법 강의	남 회 근	행을 하는 사람들
6	대승입문가경 외	동국역경원	동국역경원
7	화두참선	이 계 목	우리출판사
8	불교의 이해와 신행	조계종교원	조계종출판사
9	법상에 도가 있다	조 세 재	모 책
10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	틱 낫 한	장 경 각

도서 안내: (02)737-0695



<바보보인 선문염승 제4권 출간>
『선문염승』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칙의 본 공안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질문과 송이 달려 있다. 역저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는 선문염승 매 책마다 도움말과 송으로 취미점을 휘둘러 법문의 참 의의가 숨어 있는 공안참구의 깊이를 역할을 하였다.
www.zenparadise.com
☎ 02-597-2460 도서출판

제13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매년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포상하고 있으나 다음 요령에 따라 많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 | 역경상 | 수상대상 선정기준 | 인원 | 상금 |
|-----|---|----|---------|
| 역경상 |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하신 분 | 3명 | 각 300만원 |
| 문학상 | 불교사상을 토대로 시, 소설, 국문학(희곡, 방송극, 시나리오 등)창작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분 | | |
| 예술상 | 1. 불교사상을 토대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분(서화부분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하신 분 | | |
2. 구비서류
① 신청서 또는 추천서(지정양식) 1통
② 이력서(명함판 사진 3장) 1통
③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실적자료) 1통
3. 제출처 및 신청 마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편번호 137-070)
☎ 02)586-6521~2 / FAX 521-9948
· 신청마감 : 2004년 6월 30일
4. 심사 발표 및 시상일
· 본 재단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개별통지 및 불교관계 신문 발표
· 시상일 : 2004년 9월 24일 금요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 (02)586-652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 行願文化財團
法 人
理 事 長 朱 永 云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음질, 설비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법당전용 스피커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물 맑고 산 좋은 양수리

무궁화공원

- ▷ 서울에서 40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
- ▷ 북한강이 보이는 명당의 산세
- ▷ 온 종일 비추는 일광조건
- ▷ 다양한 형태의 묘지설치
- ▷ 수도권 최고 저렴한 가격
- ▷ 이장 무료상담



상담전화 : 031-775-0114